

한라시론



유 동 현
진로·취업컨설팅 편편집 대표

조선업종에서 행해지는 하청계약에서 잘 이해가 안됐던 내용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기성금에 대한 것이었다. 원청이 하청업체에게 일을 시킨 다음에 협력업체(하청업체)가 대금을 청구하면 전체를 다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금액의 일정 %만을 지급한다. 평가가 좋은 업체는 100% 지급하고, 만족스럽지 못한 업체는 50%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하청업체는 주어진 일을 하기위해서 이미 인력을 투입해서 인건비 지출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기성금이 투입비용과

꼼꼼히 계약하자

일치하면 본전이고, 더 주면 남는 것이고, 덜 주면 손해를 보는 구조이다. 일은 하되 수고에 대한 보상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은 다른 업종과 다른 특이한 특성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하청업체가 도산했다거나 엄청난 손해를 봤다는 얘기를 심심치 않게 들었다.

어떤 계약이건 주는 것이 있으면 받는 것이 있고, 쌍방 당사자는 어떤 것을 주고받을 것인가가 명확해야 한다. 계약이 명확해야 하고, 계약서로 명확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다. 계약서로 명확히 하지 않으면 각자의 권리를 주장할 때 분쟁의 소지가 매우 크다.

어떤 형제가 둘이서 같이 장사를 하게 되었고, 3년 후에 잘되면 어느 정도 보상을 해 주겠다고 형이 얘기를 했다. 그런데 주는 쪽은 가능성으로 얘기했고, 받는 쪽은 확실한 약속으로 이해해서 3년 후에 큰 갈등을 겪는 것을 봤다. 두 형제가 다형제 우애가 좋아서 부모님 중재하에 잘 해결됐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명확한 계약을 위해서 간단하게라도 계약서를 쓸 일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내용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간단한 아르바이트를 하건, 단기간 계약직으로 근무하건 간에 계약서가 필요하다. 후에 시비를 가릴 때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간혹 계약서를 쓰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거기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계약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은 선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받을지 권리와 책임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다는 것인데, 후에 분쟁이 되면 서로 고생을 하게 된다.

자신이 집을 지을 때 가까운 친척에게 건축을 맡겼는데 한마디로 부실공사를 해 놓은 것이다. 계약서도 부실하고, 어른벌 친척이라서 뭐라고 말도 못하고,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는 것을 보았다. 계약을 하기 전에 건축에 대한 지식을 어느 정도 알고, 꼼꼼히 계약했다라면 막을 수 있거나, 하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애매모호한 구두계약만 했기에 문제 해결하는데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족끼리 가게를 운영하여 자녀가 무급가족종사자로 일 할 경우도 말로만 하지말고 간단히 몇 줄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쓰는 것이다. 이것을 쓰면 자녀도 훨씬 책임감 있게 일할 것이다. 온정주의적인 특성이 강한 우리나라에서는 계약서 작성과 같이 선을 명확히 긋는 행위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는 경향이 있는 듯하다. 계약이란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당사자 간에 적절한 선을 미리 긋는 것이다.

사설

한일 경제전쟁 속에 맞는 제74주년 광복절

수출 규제로 인한 한일 경제전쟁 속에서 제74주년 광복절을 맞이했습니다.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에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나라를 잃은 설움 속에서 그토록 염원하던 광복이 이루어진 날이지만 그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 내부의 시각은 천양지차여서 안타까움을 더하는 것 같습니다.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제주도민들에게 낭보가 날아들었습니다. 제주지역에서 독립투쟁을 전개했던 어섯분이 정부포상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소식입니다.故김한정, 故강평국, 故현호옥, 故배창아, 故김태근, 故이원영 선생에게 건국훈장과 대통령표창이 각각 추서됐습니다. 이로써 제주출신 독립유공자는 생존 애국지사인 강대선 선생을 비롯해 모두 189명으로 늘었습니다. 제74주년 광복절을 맞아 어섯분 선생님의 노고에 인정돼 감격스럽기가 그지 없습니다.

그러나 한쪽에선 일본의 수출규제로 한일 관계가 경색되면서 제주 수산물 수출이 막혔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특히 일본 수출 비중이 높은 품목인 넙치와 활소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이같은 현상을 우려한 듯 국내 일부에서는 태평양 전쟁 당시 징용과 위안부의 존재를 부정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일본측의 주장에 동조하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징용과 수탈의 일본 식민지배에 대해 독립운동가들이 대한민국의 광복을 위해 투쟁해왔던 과거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해서 잊혀지는게 아닙니다. 특히 제주출신 189인을 비롯한 일제치하에서 쓰러져간 수 많은 독립 투사들의 역사를 뒤집는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습니다.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단재 신채호 선생의 말씀이 더욱 다가오는 제74주년 광복절 아침입니다.

‘삶의 질’ 높이는 국제자유도시로 가야

제주미래 10년을 좌우할 제주국제자유도시 제3차 종합계획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됩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은 국제자유도시 비전과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계획이자 법정계획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새로운 발전 방향으로 어떤 청사진을 담아낼지 주목됩니다.

제주도는 내년부터 2021년까지 제주국제자유도시 제3차 종합계획(2022~2031년)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합니다. 이에 앞서 체계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수립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오는 10월까지 제주연구원을 통해 기본설계 범위를 마련하게 됩니다. 제3차 종합계획은 ▷참여형 계획 ▷전략 계획 ▷실행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기존 계획체계와 수립 방식 등을 대폭 개선할 방침입니다. 특히 저성장 시대 진입과 양극화 등 경제변화, 4차 산업혁명 등 기술변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변화 등 사회·행정의 변화에

맞춰 추진됩니다. 이와함께 제주의 특징을 포함해 잠재력과 역요인, 국제 경쟁력 비교우위 등을 감안한 명확한 발전목표와 주력 육성산업이 제시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수립될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은 오는 2031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동안 이뤄진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성과와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2003년 제1차 종합계획이 수립된 이후 제주경제가 비약적으로 성장했지만 많은 부작용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교통난과 환경난 등 제주가 심한 몸살을 앓기에 이르렀습니다. 내실없이 양적으로만 성장하면서 우리의 생활환경이 최악의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3차 종합계획이 친환경 개발과 도민 삶의 질 향상에 방점을 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향후 수립될 제주국제자유도시의 발전 방향에 대한 패러다임도 당연히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편집국 25시

강정해군기지와 제2공항 그리고 제주신항



김 현 석
행정사회부 기자
ik012@halla.com

지난 1일 정부는 제주신항이 포함된 전국 12개 신항만에 대한 중장기 개발계획을 담은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을 심의, 확정했다.

제주신항만 건설은 초대형 크루즈와 여객부두 일원화를 통해 연간 400만명의 관광객을 수용하는 해양관광 허브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제주도는 제주신항이 완공되면 생산유발효과 6조3768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4조9666억원, 취업유발효과 2만9158명 등의 직접 경제효과 외에 항만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은 물론 구도심 활성화와 국제크루즈 거점항만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난항이 예상됐던 제주신항 계획에

청신호가 켜졌지만, 핑크빛 미래만 있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시행과 기본 및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어업보상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으며 제주도민 등과 발생할 갈등도 해결해야 한다.

제주도가 제주신항 계획을 발표하자 환경단체 등은 탐동 매립과 강정해군기지 사례를 들며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탐동 매립 사례처럼 또다시 일부 거대기업들의 이익만을 위한 크루즈항만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으며,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도 “제주신항 계획이 발표됨으로써 강정해군기지가 제주주민복합형관광광미항이 아닌 순수한 해군기지였다는 대국민 사기극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제주지역에는 강정해군기지의 아픔과 제주 제2공항으로 인한 갈등이 아직도 진행 중이다. 아직 치유되지 않은 아픔과 갈등의 사례들을 교훈 삼고 이번 제주신항 계획은 도민들의 목소리가 잘 반영돼 제주도와 제주도민을 위한 계획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다.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말처럼 제주도정의 성숙해진 갈등 해결 능력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뉴스-in

제주도, 바른미래당과 정책협의회

현안 해결 위한 초당적 교류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본관 2층 삼다홀에서 바른미래당 순학규 대표 등 지도부와 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14일 발표.

도는 이 자리에서 제주특별법과 4·3특별법 개정안 등의 통과에 협조 당부와 더불어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등 2020년도 정부예산에 반드시 반영돼야 할 주요사업들에 대한 설명과 협조를 요청할 계획.

제주도는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과 수시로 의견을 나누고, 관심과 지원요청에 적극 나설 방침. 조상윤기자

민방위교육 야간·주말 추가

○…서귀포시가 상반기 민방위교육 미참석자를 대상으로 9월 2~7일 실시할 보충교육과 보충비상소집훈련시 읍·면 순회교육과 함께 주말·야간 교육도 병행. 주말·야간교육은 낮시간과 주중

시간을 내기 어려운 이들에게 편의 제공을 위한 것으로 야간교육은 5~6일, 주말교육은 7일 실시할 예정.

시 관계자는 “상반기에도 주말과 야간교육을 실시했는데, 잘 모르는 이들이 많다”며 “앞으로도 2차례의 보충교육 실시 등 교육이 수를 위해 다양한 편의시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 문미숙기자

“교실에서부터 독립의 희망”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광복절을 맞아 “교실에서부터 독립의 희망을 싹틔우겠다”고 약속.

이 교육감은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제74주년 광복절 기념사를 통해 “제주에 있어서 광복은 아픈 이름이기도 하다”며 “광복의 희망은 4·3이라는 비극이 돼 제주 사람들을 폭력과 모순의 굴레 속에 몰아넣었다”고 강조.

이 교육감은 이어 “4·3의 눈으로 광복을 바라본다면, 여전히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많다”며 “광복을 넘어 진정한 ‘독립’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당부. 표성준기자

부 고

김한신(재은상사 대표) 아버지 **김해김공 영삼(향년 91세)**께서 서기 2019년 8월 13일 00시 05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 일 포: 2019년 8월 15일(목)
▶ 발 안: 2019년 8월 16일(금)
(경매사) 오전 6시 30분
▶ 빈 소: 동문성당
▶ 장 차: 함림선영

부 인 **장순애**
아 들 **김한규**(做) 며느리 **서영선**
한신 김연재
한섭 양순희
현철 문지윤
딸 **김연희** 사 위 **박홍준**
손 자 **김병현**
정현
재현
주현
지현

※ 연락처 : 김한신 010-4660-5737
김현철 010-3699-6119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제주양씨 두영(향년 87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사를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뵈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오나 우선 저편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19년 8월 15일

아 들 **진기택** 며느리 **전순옥**
기정 김정희
기방 김경희
딸 **진희선** 사 위 **곽재호**
민자 김태진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적성
미국식품의약회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홍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전기차 사고 팝니다.

evworld.kr
전기자동차매매상사
제주시 일주서로 7714(도두일동)
1544-8236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석주개발

☎ 712-3644, 782-3644
010-4690-3636

별초

전문별초 대행업체
직통 T. 010-3692-4898
사무실 713-4898

계분 판매합니다. (배달가능)

무항생제인증,
HACCP인증 받은
자연건조한 계분(산란계)판매
전 화 : 064-796-6947
핸드폰 : 010-3699-3344

신일농장, 제주팜
(주소: 제주시 함림읍 명상로106-7)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서귀포시정 소식

서귀포시 동부도서관
8월 인문학 강연 알림

- 일시 : 2019. 8. 22(목) 18:30
- 장소 : 서귀포시청 별관 2층 문화강좌실
- 주제 : 당신이 SF에 대해 알고 싶은 모든 것
- 강사 : 복도훈 작가
- 수강료 : 무료
※ 중·고생 강연 참여시 봉사시간 2시간 인정
- 신청방법 : 홈페이지, 방문, 전화신청 / 선착순 접수
- 접수 및 문의 : 서귀포시동부도서관
(☎ 760-3692~3698)